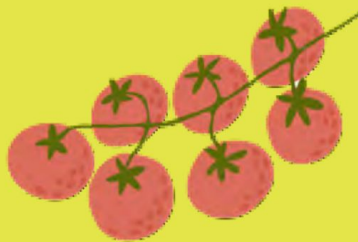




희망과 위로의 레시피





희망과 위로의 레시피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지역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록이기도 하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소중하게 포장되어 책이 되었다. 우리 집의 작은 화분이 책에 실리는가 하면, 어린 시절의 빛바랜 가족사진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다시금 생명을 얻기도 했다.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눈물을 짓고, 생각에 잠긴 흔적이 책으로 묶였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는 다만 지나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봉사와 베품의 이야기는 현재형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미래형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낳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이가 손잡아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천 개의 손을 함께 잡는 작업이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웃동화

공숙자

김은숙

김선화

김은주

김희숙

남정자

송혜숙

송영숙

양선자

유기미자

이미형

이영자

장귀순

정귀자



※이웃동화-이웃이 이웃을 돕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차례

해독주스 이야기 4

ABC주스 10

집에서 만드는 해독주스 레시피 46

과일별 효능 58

해독주스 이야기



남산정 복지관이 분주하다.

오늘은 해독주스를 만드는 날이기 때문이다.

수확부터 재료 손질, 포장까지 모두 직접 하셔서 만든,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남산정 표 해독주스.

남산정 복지관에서 해독주스를 만들기

전에 주면 안 되는 게 있는 게 아니었어.

특수해서 수확할 때도 힘들다. 복지관 직원들이

같이 할 때는 정말 모두 손잡고 같이 했어.

수확할 것만 봐도 어떤 농작물을 가져와 수확할지도 한다.

고양이 분양이니까 해서 일하는 수확을 사람들이 할 때도

그냥은 모두 수확하고 받아서요.

전에 할까 해서 주는 해독주스에 대해서도 상담받고요.

수확하고 만들어서 남산정 복지관에

복합해서 나눠서 일하는 직원들도 받을 거고.

한 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말씀드리고 드셔보세요. 해독 주스 해독 효과가 있어요.

